

## 보육컨설팅의 의미와 실천 방향 탐색\*

### Exploring the ‘What’ and the ‘How’ of Childcare Consulting

박수경<sup>1</sup> 이영진<sup>2</sup> 김평례<sup>3</sup>

Sukyong Park<sup>1</sup> Youngjin Lee<sup>2</sup> Pyeongrye Kim<sup>3</sup>

#### ABSTRACT

**Objective:** The researchers aimed to explore the ‘what’ and the ‘how’ of childcare consulting. This study was focused on finding out how child care teachers perceived the process of implementing childcare consulting and their thoughts about the transformation of childcare consulting based on their participating experience.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the transverse-continuous design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he participants were eight experienced childcare teachers that were childcare consulting in 2015 or 2020.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Results:** The main findings in exploring meanings and implications of childcare consulting were as follows. First, childcare consulting was recognized as a process of learning about changes through mutual relationships. Second, the different ways to practice childcare consulting, the formation of the learning culture of an organization to help experience collective intelligence, the process of finding various solutions through mutual communication, and the improvement of childcare teachers’ professional capabilities while reflecting the current times and context were all investigated.

**Conclusion/Implications:**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importance of childcare consulting, and the ways to establish its systems were discussed.

**key words** childcare consulting, childcare teacher, qualitative research

\* 이 논문은 2018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  
임.

#### 1 제1저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부교수

#### 2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생  
(e-mail : molen@konkuk.ac.kr)

#### 3 공동저자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박사

##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라 공보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많은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영유아를 돌보는 것이 가정만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게 되었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개진되고 있는 실정이다(고선주, 김균희, 김영명, 이완정, 정하나, 2007). 이러한 배경에는 인간의 기본 잠재력을 결정하는 시기가 바로 영유아기라는 학문적 뒷받침(박휴용, 여영기, 2014; 정미라, 권정운, 박수경, 2011; Fox & Rutter, 2010), 저출산과 고령화

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 자녀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부모들의 열정과 기대 수준(윤지은, 2011)이 반영되었다.

초기 우리나라의 보육 관련 정책은 보육 기반 환경 조성에 초점이 기울어지면서 주로 서비스 공급 확충과 무상보육 확대에 힘을 실어 왔다. 이에 최근 정부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여 우수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어린이집의 공공성과 신뢰 증진,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 시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보육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한국보육진흥원, 2019). 예를 들면, 보육현장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의 일환으로 ‘평가인증제’의 명칭을 ‘평가제’로 변경하여 모든 어린이집이 기관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개편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특히,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증진과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학자들은 무엇보다 보육교사 개인의 경험과 배경, 전문성 발달 수준, 교사로서 요구되는 사고 수준에 대한 이해가 보육현장의 개선을 위해 필요함을 지적해 왔다(이윤아, 2019; Beaty, 2008; Zigler, Gilliam, & Jones, 2006). 여전히 현직 보육교사들을 위한 교육은 비자발적이고 일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육교사들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다양한 여건을 직무교육에 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손홍숙, 2015; 오채선, 엄지숙, 2016; 이주하, 2011). 일방적인 보수교육이나 보육과정 관련 매뉴얼 보급만으로 보육교사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도 미진한 편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고 좀 더 적극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육컨설팅이 모색되었다(이은정, 황해익, 2019). 일반적으로 컨설팅(consulting)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독립적인 자문활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현장의 제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진동섭, 2003). 이러한 컨설팅은 의뢰인의 자발적인 요청을 기반으로 시작되며 의뢰인 스스로 개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동기가 우선시 된다(박상완, 2008). 컨설팅 과정에서 전문가인 컨설턴트가 참여자들과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며 적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서 컨설팅은 현장성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 자문서비스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김광용, 김명섭, 이채연, 이용희, 2008). 이와 같은 컨설팅의 장점을 받아들여 2010년 우리나라에서 보육교사들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보육현장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컨설팅이 도입된 것이다.

보육컨설팅은 전문성을 갖춘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4). 즉, 보육컨설팅은 보육교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보육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아 교사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역량을 향상하여 보육교사로서 성취감과 자긍심을 갖고 보육과정 운영에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보육컨설팅이 우리나라에서 큰 비중을 갖게 된 계기는 2010년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평가인증 사후관리 차원에서 보육컨설팅 사업이 시작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보육컨설팅은 독립적인 사업으로 시행했다기보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하고자 하는 정책에 맞물려 실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보육컨설팅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중앙 및 지방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전국의 평가인증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질 관리 점검과 재인증 준비에 대한 지원이었다(정효정, 장영인, 김현진, 2016). 이때부터 보육현장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를 통해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영역 등 보육과정 내용 또는 조력이 필요한 영역에 맞춤 지원을 해주고자 협의의 보육컨설팅이 진행되었다(이미선, 2020; 정진희, 이대균, 2019; 정효정 등, 2016; 황소영, 2020; 황해익, 조준오, 김병만, 2012). 즉, 어린이집 질적 수준 유지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육컨설턴트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개별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보육컨설팅이라 할 수 있다. 보육컨설팅의 초기 도입 단계에서 보육교사들은 보육컨설팅이라는 용어와 그 과정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보육컨설팅의 주요 목적은 보육교사들이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문성 함양으로, 개별교사가 자신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맞춤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최근에 와서 보육컨설팅의 영역은 평가인증 후속이나 교수학습지원을 넘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육교사들은 '영아존중과 공감의 이해'라는 주제로 개정된 누리과정의 방향과 연계하여 놀이와 영아중심의 보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제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안소영, 2020). 놀이 중심·아동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현장의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영유아들에게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정진희, 이대균, 2019). 이에 개정된 보육과정에 따라 보육현장 관찰 및 교사 면담이 진행되고 교사들이 직면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컨설팅이 이루어진다면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제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게다가 2020년 3월부터 이루어진 어린이집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되어 연장보육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고 있기에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 시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보육컨설팅이 이루어지기 위한 환경적 맥락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 보육컨설팅이 태동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보육컨설팅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행된 보육현장의 개선이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제도 방안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현장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던 보육컨설팅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놀이중심 보육과정에 관한 컨설팅(이미선, 2020; 황소영, 2020), 보육교사의 활동과 상호작용에 대한 컨설팅(정진희, 이대균, 2019), 생태유아교육에 관한 컨설팅(송주은, 김은주, 2019), 창의적 수업 실천을 위한 컨설팅(강현경, 2018) 등 보육컨설팅의 주제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공적인 보육컨설팅 안착을 위해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보육컨설팅 관련 연구들은 미시적 수준의 보육컨설팅 참여 경험과 거시적

수준의 보육컨설팅 제도 취지 사이에 중재되어 있는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데 미흡하였다. 즉, 교사의 발화나 교실 환경구성 등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미시적 수준에서 살펴봄으로써 보육컨설팅의 목적에 내재되어 있는 거시적인 맥락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점차 컨설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강은진, 2019; 강현경, 2018; 원종례, 2009; 이옥경, 안정아, 2013; 전호숙, 2009; 정진희, 이대균, 2019), 이러한 연구들은 교육 및 보육과정 컨설팅 효과에 주목하고 있었다. 주요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보육컨설팅을 통하여 보육교사는 교수효능감, 자기평가 능력, 전문성이 향상되었고, 컨설팅 참여 기관은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강은진, 2019; 강현경, 2018; 원종례, 2009; 이대균, 2004; 이옥경, 안정아, 2013; 전호숙, 2009; 정진희, 이대균, 2019). 이와 같은 보육컨설팅 선행연구는 보육컨설팅 사후의 교사 경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보육컨설팅의 주체, 진행 과정 등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0년 동안 실시된 보육컨설팅의 흐름을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시행된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의 경험을 주목하여 우리나라 보육컨설팅의 의미를 탐색하고 앞으로의 실천 방향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육컨설팅이 미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 기관의 맥락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가의 보육 제도 및 정책 등이 보육 시스템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가 바라본 보육컨설팅의 의미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가 바라본 보육컨설팅의 실천 방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시행된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보육교사를 목적표집하였다(Merriam, 1998). 먼저, 2015년에 시행된 ‘아이조아~서울’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S시 K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4명이었고, 2020년에 시행된 ‘보육과정 속 놀이·영유아 다시보기’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S시 C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4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30대부터 50대까지, 학력은 보육교사양성과정이수부터 교육대학원 석사까지 매우 다양하였으며,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만 0~2세반 담임교사들이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연구 동의를 얻고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의 이름은 연구의 윤리성(김영천, 2007)을 고려하여 모

두 가명으로 표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보육컨설팅 시행 시기	이름 (가명)	연령	학력	경력	담당연령	자격취득기관
2015년도	A 교사	만 49세	고졸	12년	만 0세	보육교사양성원
	B 교사	만 47세	초대졸	10년	만 0세	대학
		만 45세	초대졸	8년	만 1세	대학
	D 교사	만 37세	대졸	9년	만 2세	대학교
2020년도	E 교사	만 39세	대졸	1년	만 0세	대학교
	F 교사	만 30세	초대졸	6년	만 1세	대학
	G 교사	만 41세	대학원졸	8년	만 1세	대학교
	H 교사	만 44세	대졸	7년	만 2세	대학교

##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보육컨설팅의 흐름 속에서 보육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을 근거로 보육컨설팅의 의미와 실행 방안을 살펴보는 취지를 살리고자 다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에 서로 다른 연구 집단으로부터 2회 그리고 2명 이상의 참여자들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얻어 분석(이종승, 2016)하고자 하였다. 2015년에 시행된 보육컨설팅에 대한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4월~2016년 2월이었고, 2020년에 시행된 보육컨설팅에 대한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4월~2020년 12월이었다. 연구자는 해당 기간에 보육컨설팅을 경험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들과 직접 만나 심층면담(Glesne, 1999)을 진행하였다.

먼저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을 구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을 사전에 면담한 후 보육컨설팅 전문가 1명과 함께 질문 내용과 면담 전사본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 목록을 작성하였다. 심층면담은 보육컨설팅이 시행된 전·후 시점에 어린이집 내 조용한 곳에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기의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면담을 녹취하였고, 면담 중 연구자 노트에 대화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였다. 심층면담은 교사 1명당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1회 면담은 대략 30~6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모든 면담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1차 면담은 전반적인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보육교사와 라포를 형성하면서 보육컨설팅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2차 면담은 연구참여자가 보육컨설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컨설팅트와 교사의 상호작용, 컨설팅 사례발표가 진행되는 과정, 원격지원에 관한 내용, 교사 소모임 내용 등 전반적인 보육컨설팅 참여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3차 면담은 보육컨설팅이 종료된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보육컨설팅을 통해 알게 되었거나 변화한 점, 보육컨설팅의 장·단점 및 지원 방안 등을 질문하며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보육컨설팅에 바라는 시각과 요구는 무엇인지 직·간접적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인터뷰, 전화,

문자, SNS를 통해 비공식적인 면담도 진행하였으며, 연구자의 일지와 메모, 보육컨설팅 관련 문서 자료, 워크샵 자료, 보육일지, 보육교사의 워크지 기록 등도 수집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질적 프로그램의 반응적 평가 방법(Stake, 2004)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포함된 에피소드를 추출하였다(Yin, 2003). 이 과정에서 전체에 대한 총체적 분석과 삽입된 에피소드의 구체적 분석을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둘째, 각 사례에서 공통적인 주제를 찾기 위한 분석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출된 사례의 구체적인 맥락(Merriam, 1998)과 함께 참여자(stakeholder)의 관점에서 보육컨설팅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분석할 수 있었다. 셋째, 도출된 의미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보육컨설팅의 의미와 실행 방안을 귀납적으로 탐색하였다. 자료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각측정법(김영천, 2007)을 사용하였다. 유아교육전공 교수 1명, 박사과정 수료생 1명,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동료 2명과 함께 연구자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이고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보육컨설팅의 의미: 진정한 경험을 나누고 변화를 학습하는 과정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모든 교사는 컨설턴트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나누었고 이를 개선하면서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를 얻었다. 상호소통과 협력할 기회는 보육컨설팅에서 매우 중요한 힘을 부여한다(임연자, 2019). 보육교사들은 보육컨설팅이라는 기회의 장에서 진솔한 경험을 나누면서 교실의 작은 변화를 꿈꾸었고 교사중심이 아닌 영아중심의 보육을 실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스스로 실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생산적 학습의 주체가 되어보는 경험을 하였다.

#### 1) 평가가 아닌 변화에 대한 지향

진정한 의미에서의 컨설팅이란 교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영만, 2014)으로 궁극적으로 보육교사 개인의 전문성 발달을 지향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기대감이 없거나 막연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보육컨설팅에 참여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부담감 이면에는 보육컨설팅을 통해 교사로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주어지고 있었다.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나중에 저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좋은 거로 생각했어요. 제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이니까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수정해주고 조언해주고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2015. 7. 14. D교사 면담)

교사들의 컨설팅 참여는 교사 주도성이나, 아니면 위에서 시켰느냐 등의 동기 문제인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가도.... 다양함 마음으로 컨설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2015. 8. 24. A교사 면담)

딱히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바뀌는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교사가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 헛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게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의 정도까지는 교사가 개입을 좀 해줘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2020. 9. 28. G교사 면담)

컨설팅을 받게 되면 어린이집에 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유아의 전인 발달이나 행복한 발달을 도모해서 교사와 원장님과 부모님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20. 9. 29. H교사 면담)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한 보육컨설팅의 진행 과정에서 보육교사들은 조금씩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보육컨설팅에 참여하여 교사로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는 반성적 사고를 하기 위한 계기를 갖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의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보육교사들보다 2020년의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이 개정된 보육과정의 맥락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탐구하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아이들 편에 서서 아이들을 위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긍정적인 언어가 몸에서 우러날 수 있게 자리 잡았으면 해요.

(2015. 7. 22. D교사 면담)

표준보육과정이 바뀌면서 영역 구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좁은 교실 공간을 활용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컨설팅을 받고 교사들끼리 모여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해 보고 교구장과 교구장을 떨어트려 놓으면서 공간을 분리하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좀 더 자유롭게 놀이하더라고요.

(2020. 10. 28. F교사 면담)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보육컨설팅 참여 동기가 자발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보육컨설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누군가에게 자신의 교실 그리고 수업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평가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점도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육컨설팅에 참여하면서 보육교사들은 보육컨설팅의 취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워가고 있었다. 특히, 2020년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 과정을 탐색해 보면서 이 시기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배우고 있었다.

## 2) 영아중심 보육 철학의 실천이라는 원점으로 회귀

보육컨설팅 과정에서 교사들은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영아들의 놀이를 위해 관찰의 중요성을 발견하였고 영아의 말과 행동 그리고 놀이 속에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 기다림을 실천하며 모든 영아에게 선입관을 갖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은 교사들과 서로 의논하면서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었다. 이는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스스로 발전시켜야 함을 깨우치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하나의 행동으로 다른 것도 그럴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영아를 대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컨설팅을 받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됨으로써 좀 더 여유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모든 아이에게 다양한 기질과 가정환경이 있음을 알고 항상 영아의 초점에서 생각해야 함을 느꼈어요.

(2016. 1. 10. C교사 면담)

전에는 영아다 보니 교사가 무언가를 계속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기다려 주지 않고 지속해서 놀이가 끊이지 않도록 제안했다면 이제는 영아들이 본인 선택에 의해 놀이하도록 기다려 주고 놀이의 흐름을 끊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아의 놀이를 집중해서 관찰하다 보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서 그때그때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2020. 11. 30. E교사 면담)

몇몇 교사들은 선입관과 편견을 갖고 영아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육컨설팅 과정에서 이러한 교사들은 보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사유해보는 경험을 하였다고 했다. 2015년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보육교사는 영아의 개별적 기질이나 환경을 이해하면서, 2020년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영아들의 개별적 기질이나 환경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영아들의 다양한 놀이를 존중하고 지원해 주고자 하는 기다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보육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경험하였다. 영유아는 동일 연령이라 하더라도 월령이나 개인의 경험, 환경, 기질이 다르므로 발달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영·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박찬옥, 홍찬의, 2014). 이러한 맥락은 지속적으로 보육컨설팅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즉, 보육교사는 영아의 독특한 욕구, 흥미,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영아를 존중하면서 적합한 지원을 해야 하며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지원해 줌으로써 영아중심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이 보육컨설팅의 중점 내용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3) 작은 변화를 협상하는 학습의 기회

컨설팅 과정을 통해 상호 간의 교류가 일어나면서 교사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컨설팅의 핵심 내용으로 강조된다(고영미, 2007; 송근영, 2017).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 교사들은 교실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켜 나갔고 영유아의 놀이가 달라지는 계기를 만들어 가면서 교실 속 작은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교실은 좁은 공간이라 대근육을 탐색영역과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쌓기놀이(영역)를 옮겼어요. 그동안 좁은 공간에서 했다면 넓은 쪽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20% 정도 놀았다면 요즘에는 70~80% 정도 놀아요.

(2016. 2. 13. D교사 면담)

컨설팅을 받으면서 교실이 너무 좁고 교구장이 너무 붙어 있어 영아들의 놀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사들과 이야기를 하여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쪽의 교구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확실히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넓어져 따로 떨어져 놀이하니 다툼도 줄어들고 놀이에도 더 몰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2020. 10. 28. F교사 면담)

기존의 영역이나 놀잇감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발달에 적합한 환경구성은 늘 교사의 몫이라 할 수 있다(고경국, 2002). 2015년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교사의 경우 컨설턴트와의 상호작용으로 교실 환경의 변화를 끌어내는 물리적인 환경 변화에 초점이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 2020년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교사의 경우 보육컨설팅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동료 교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공간 재구성의 중요성을 학습하였다. 이들은 좁은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교구장의 위치를 바꾸는 등 교실 속 변화를 스스로 탐색함으로써 영·유아들의 놀이 공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였다. 2015년의 보육교사들은 컨설턴트의 직접적인 도움을 통해 보육교사 개인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있었고, 2020년의 보육교사들은 컨설턴트와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실 속 작은 변화를 도모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있었다. 이들 모두 영·유아들이 교실 속에서 공간의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탐색하고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교사의 역할을 배워나갔다.

## 2. 보육컨설팅의 실천 방향: 집단 지성을 경험할 수 있는 조직의 학습문화 형성

보육교사들은 보육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컨설턴트, 원장, 교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소통의 길을 찾아 나가길 희망하였고, 하나의 작은 조직문화가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신여정, 2009; 이종미, 2010)가 되기를 바라왔다. 이러한 보육컨설팅 과정은 좀 더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보육컨설팅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 1) 소통을 기반으로 해결 방법을 스스로 탐색

교사들은 컨설턴트와 소통을 하면서 그동안 교사로서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해 질의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통해 발전하고자 하였다. 컨설턴트의 답변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을지라도 교사는 답변을 기반으로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해보고 시도해보면서 스스로 성장하고자 노력하였다.

영아들이 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했는데요. 컨설턴트는 영아들의 모든 놀이를 지지하는 것은 좋으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원에서 수궁할 수 있는 것은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상황을 관찰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어요.

(2015. 7. 23. B교사 면담)

우리 반에 등원 시 우는 아이가 있어 질문드렸는데 혹시 친밀감 갖고 있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 (중략) … 컨설턴트 선생님은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게, 안정감 가질 수 있게 엄마와 학부모 면담을 통해 도움 요청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씀 중 지금 두 가지 실천하고 있어요.

(2015. 8. 10. D교사 면담)

사실 일지 보고 피드백 받기 전까지는 왜 해야 하나 못 느꼈는데요. 일지 피드백을 받고 난 이후로 많이 느꼈어요. 일지를 보면서 컨설턴트가 놀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교사가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를 보았는데요. 저는 나름 아이들이 놀이한 것을 쓰고 피드백한 것을 썼다고 했지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쓰는 방법을 직접 일지에 적어주시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일지를 놀이의 진행과 방향에 맞춰서 쓰고 그다음에 교사의 지원에 관해 썼거든요. 일지를 쓰면서 제가 아이의 놀이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2020. 12. 11. F교사 면담)

컨설팅을 받으면서 놀이에 대한 지원이나 확장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컨설턴트께서 2권의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발현적 놀이 확장에 대한 책과 교육과정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결국 교사의 역량 안에서 교육과정이 나온다는 것이죠. 교사가 얼마만큼의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질 자체가 달라지기에 놀이중심 영아중심에 대한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지식을 좀 더 플러스할 수

있었고, 일단은 애들이 흥미를 보이는 것 위주로 하려고 많이 변화했어요.

(2020. 12. 11. G교사 면담)

이와 같이 2015년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컨설턴트의 자문에 따라 실천해보는 수동적인 모습이었던 반면, 2020년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교사의 경우 컨설턴트로부터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탐구 과정을 배우고 있었다. 즉, 2020년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교사들이 경험한 컨설턴트와의 소통은 훨씬 맥락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예를 들면,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로부터 놀이를 지원해 주고자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보육교사와 컨설턴트 간의 상호작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었다. 이에 보육교사들은 컨설턴트와 소통하면서 영·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 역할을 심도 있게 탐색하였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컨설턴트와의 만남 속에서 반성적 사고를 하는 과정을 배우고 변화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키워 나가면서 자신의 교사역량을 증진하고 있었다.

## 2) 다양한 협력적 관계 형성 도모

보육컨설팅을 통해 보육교사들은 다양한 협력 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먼저, 보육교사들은 기관 밖에 있는 컨설턴트와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보육과정의 토대 위에 어떻게 자신의 보육현장을 변화시키면 좋을지 보육컨설턴트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갔다. 다음의 사례는 보육교사들이 경험한 협력적 관계의 모습이다.

사실 원에서는 다들 바빠서 자기 일 하느라고 별로 보육에 대해서 의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고민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원내회의를 통해 각 반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했어요. 컨설턴트 선생님께 보내려고요.

(2015. 7. 22. D교사 면담)

보육에 있어서 전문성,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육에 많이 익숙해지고 또한 많이 지치고 새로운 것도 싫고, 그런데 컨설팅을 통해서 다른 교사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새로운 열정이 살아나고 있어요.

(2015. 10. 31. A교사 면담)

교사회의 시간에 컨설팅을 받은 부분에 대해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안전은 어떻게 확보하고 어디까지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함께 논의하다 보니 컨설팅을 받은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더라고요.

(2020. 10. 30. F교사 면담)

컨설턴트께서 팀티칭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은 각자 자신의 일이 있잖아요. 하지만 교육과정을 이끌어 갈 때는 함께 같이하면서 합작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2020. 12. 11. H교사 면담)

이와 같이 2015년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보육컨설팅트와의 협력을 주로 경험하였다. 반면, 2020년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보육컨설팅트와의 협력은 물론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원장, 교사,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성공적인 보육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배우면서 다양한 협력 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경험을 하였다. 물론 모든 보육교사의 공통점은 누군가와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교사로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 데 도움이되고 궁극적으로 영유아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보육 실천으로 연계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보육컨설팅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보육교사 각자가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워 나갔다.

### 3) 시대적 흐름과 맥락을 반영한 보육교사의 전문적 역량 제고

보육교사들이 참여한 보육컨설팅은 모두 ‘평가인증제도’나 ‘평가제’와 같은 거시적 관점의 국가 보육정책이 반영되어 있었다. 2015년의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교사들의 관심은 평가인증제도와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평가인증제도의 현장 평가의 내용과 관련 있는 보육컨설팅에 참여하고 있었고 보육 계획을 하는 것에 관심이 쏠렸다. 보육컨설팅을 통해 쌓아온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실천한다면 평가인증도 잘 대비할 수 있고 자신의 전문성도 강화되어 보육을 잘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2020년도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교사들의 관심은 변화한 개정 표준보육과정에 있었다. 따라서 놀이중심·영아중심의 보육과정을 어떻게 끌어내고 실행하며 기록해야 하는지 등 실제적인 보육과정 운영에 관한 전문성 제고와 증진이 보육컨설팅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컨설팅을 받으면서 평가인증에서 받는 어려움과 달리 점수에 민감하지 않아도 됨을 알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하루일과도 부담 없이 계획할 수 있었고 영아가 중심이 되어 수업을 하고 교사는 도와주는 입장이라는 것을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2016. 2. 13. C교사 면담)

좀 더 영아가 주도하고 흥미를 느끼는 놀이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로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또한,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다 보니 의미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탐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 (중략) ... 컨설팅을 받고 변화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자 컨설팅트가 추천해 주신 책도 읽어보고 다른 것도 찾아보려고요.

(2020. 12. 11. G교사 면담)

교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의 놀이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비계설정 해주고 이렇게 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놀이중심·아동중심으로 놀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유익했어요. 전에 비해 영아들에게 제지하는 말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 교사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2020. 12. 11. E교사 면담)

이와 같이 보육교사들은 보육컨설팅을 통해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2015년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보육교사들보다 2020년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개정된 보육과정의 변화와 바뀐 평가제의 취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놀이와 영아중심이 실천되는 맥락 자체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와 같은 맥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교사 역량 제고에 더 힘을 쏟고 있었다. 이처럼 보육교사들은 보육컨설팅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서 학습을 지속해 나가는 연구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배우고 있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시행된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의 시선에서 보육컨설팅의 전개 과정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탐색해 보면서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의 의미와 실행 방안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컨설팅은 서로의 관계 맺음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나누며 배우는 과정이었다. 보육교사들은 평가가 아닌 변화를 지향하는 경험을 하였다. 2015년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교사들은 부담스럽지만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컨설팅을 시작하였고, 2020년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교사들은 표준보육과정 개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컨설팅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5년 전이나 현재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모든 보육교사는 개인의 참여 동기에 따라 부담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전문성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보육컨설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유치원 교사가 컨설팅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하며 참여한다는 김안나(201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보육컨설팅의 사전 경험이 전혀 없는 교사들의 경우 컨설팅이 곧 평가라는 인식이 강해 두려움도 느끼고 있었다. 보육컨설팅에 대한 사전 정보의 부족은 보육교사들이 보육컨설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와 보육컨설팅을 통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보육교사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로 인식하기 쉽다(조혜진, 고은미, 2015). 즉, 보육컨설팅 제도와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육컨설팅도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같이 외부전문가와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담스러운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보육컨설팅을 경험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컨설팅 과정에서 컨설턴트와의 면담을 통하여 컨설팅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협력적인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보육교사들은 컨설턴트의 지속적인 조언을 기반으로 동료 교사들과 협력하면서 자신감이 높아졌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교사들은 컨설턴트와의 관계 속에서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수효능감 증진, 교사로서의 자존감 향상, 영유아와 교사에게 모두 만족스러운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김주영, 2014; 박정빈, 2014; 박정빈, 김정희, 김은심, 2012; 이윤아, 2019).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보육교사들은 자신의 교실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는 교사가 홀로서기 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가운데 교사의 자발성과 독립성이 컨설팅의 기본 원리(진동섭, 2003)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보육교사들이 자신의 성장과 현장 개선의 필요성을 알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육컨설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컨설팅은 집단 지성의 경험을 중심에 놓고 소통이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장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육교사들은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배움을 경험하였고, 다른 교사들과 배움을 나누며 협력하는 태도를 배웠다. 특히, 2020년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교사들은 보육컨설팅이 끝난 후에도 다른 교사와 계속해서 토론하면서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갔다. 보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컨설팅트, 동료 교사, 원장과의 소통은 보육컨설팅 과정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은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보육컨설팅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협력은 보육교사가 발견한 자신의 반성적 사고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보육컨설팅의 과정에서 보육교사들이 동료 교사와의 정서적 편안함 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고 보육컨설팅 과정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상담기법에서 내담자가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효과적인 상담을 이끌 수 있는 것처럼(이진옥, 2015)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보육컨설팅트의 자질 향상과 보육컨설팅 과정의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교사들은 보육컨설팅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증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반성적 사고가 교사 자질의 개발과 전문가로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석문주, 권덕원, 김명숙, 최미영 그리고 정지혜(2010)의 주장을 지지하기도 한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이 참여한 보육컨설팅은 모두 ‘평가인증제도’나 ‘평가제’와 같은 거시적 관점의 국가 보육정책이나 보육과정의 변화라는 틀과 연계하여 자발적 학습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컨설팅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사고 과정은 자신의 성찰과 자발적 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이 과정이 교사로서 성장하는 거름이자 원동력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이윤아, 2019). 보육교사들의 교사 전문성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신장하면 교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이영만, 2014; 탁정화, 황해익, 2012; Park, 2009).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은 보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실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졌고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좀 더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실천적인 지식을 배워 나갔다. 또한, 변화된 보육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료 교사와의 협력 속에 보육현장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컨설팅의 궁극적 목적이 교사의 수업 개선이나 전문성 발달 증진이라는 점(김도기, 2005)이 반영된 긍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 기관의 변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긴밀히 요구된다(Elmore, 2005; Fullan, 2001). 보육현장의 변화를 위해

보육컨설팅을 기반으로 그 시대의 흐름과 맥락이 반영된 교사의 역량이 강조되고 그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집단 전문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보육컨설팅의 체제 구축과 실행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또는 2020년의 보육컨설팅을 경험한 일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보육컨설팅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두 시기의 보육컨설팅을 함께 경험한 전국 단위의 보육교사 대상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둘째, 본 연구에서 보육컨설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 증진 경험은 깊게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에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교사들의 전문성 증진 과정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 접근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컨설턴트와 보육교사와의 협력, 컨설턴트와 동료 교사들의 협력을 강조하였으나 그 협력의 역동성을 살펴보는 못하였다. 따라서 보육컨설팅에서 파생된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과 구형 양상을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보육컨설팅의 후속 장면으로 실제 보육컨설팅에 참여한 어린이집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보육컨설팅과 실제 개선 사례를 다룬 심층연구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고문헌

- 고경국 (2002). 영아보육의 흥미영역별 환경구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 영아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선주, 김균희, 김영명, 이완정, 정하나 (2007). 수요에 기반한 서울시 맞춤형보육 공급방안연구(07-정책-008). 서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65228>에서 2020년 11월 28일 인출
- 고영미 (2007. 6). 보육시설 내 교사 장학 프로그램.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토론 논문, 강릉.
- 강은진 (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을 위한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육아정책포럼**, 62, 16-23.
- 강현경 (2018). 일상적 활동의 창의적 수업 실천 및 컨설팅을 통한 유아교사의 변화.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1), 283-311. doi:10.22590/ecee.2018.22.1.283
- 김광용, 김명섭, 이채언, 이용희 (2008).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의 이해와 활용. 서울: 청람.
- 김도기 (2005). 컨설팅 장학에 대한 질적 실행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안나 (2013). 유치원 교사가 경험한 수업컨설팅의 의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1), 347-366.
- 김영천 (2007).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주영 (2014). 유치원 원감의 원내 수업 컨설팅을 통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상완 (2008). 학교 컨설턴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6(2), 343-362.

- 박정빈 (2014). 만 2세 영아반 교사의 자유놀이에 대한 수업컨설팅 실행연구.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빈, 김정희, 김은심 (2012). 영아반 교사(만 2세)의 수업 컨설팅에 대한 현황 및 요구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73, 473-496.
- 박찬욱, 홍찬희 (2014). 역동적 평가를 통한 만5세 유아의 토의, 토론 능력 발달과정 탐구. **유아교육학논집**, 18(1), 247-271.
- 박휴용, 여영기 (2014).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85, 69-95.
- 보건복지부 (2017. 1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설명자료**. <https://www.mybudget.go.kr/file/FileDown.do?atchFileId=FID00000243&fileSn=4>에서 2020년 11월 28일 인출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4). **2015년 ‘아이조아~서울’ 맞춤 컨설팅 매뉴얼 설명자료**. <https://central.childcare.go.kr/ccc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50&BID=51035&ATCHMNFSEQ=1>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 석문주, 권덕원, 김명숙, 최미영, 정지혜 (2010). 음악예술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요구분석. **예술교육연구**, 8(3), 195-216.
- 송근영 (2017). 보육과정 컨설팅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주은, 김은주 (2019). 가정어린이집의 생태유아교육 실천경험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G구 전환컨설팅 사례를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18(4), 1-26. doi:10.30761/ecoece.2019.18.4.1
- 손홍숙 (2015). 보육정책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5(2), 65-84.
- 신여정 (2009). 수업컨설팅 장학에 대한 초등교사 인식과 활성화 방안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소영 (2020). **보육과정 속 놀이·영유아 다시보기**. 서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오채선, 염지숙 (2016). 영아보육교사 전문성 담론 형성을 위한 비판적 고찰. **열린유아교육연구**, 21(1), 319-341. doi:10.20437/KOAECE21-1-13
- 원종례 (2009). 통합교육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이 유아 교사의 개인적 교수 효능감 및 교수 수행과 장애 유아의 활동 참여에 미치는 효과. **유아특수교육연구**, 9(2), 95-115.
- 윤지은 (2011). 교사가 지각한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의 직무만족.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대균 (2004). 유아교육기관의 기관평가 컨설팅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9(2), 181-200.
- 이미선 (2020). 보육현장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보육교사의 마음의 틀 깨기. **인문사회** 21, 11(4), 561-576. doi:10.22143/HSS21.11.4.1
- 이영만 (2014). 유치원 초임교사를 위한 수업컨설팅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옥경, 안정아 (2013). **부산광역시 보육장학지표개발 및 운영방안**.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이윤아 (2019). 보육교사를 위한 보육과정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 위 논문.
- 이은정, 황혜익 (2019). 어린이집의 강점기반 컨설팅 모형 탐색. **생태유아교육연구**, 18(2), 117-143. doi:10.30761/ecoece.2019.18.2.117
- 이종미 (2010). 초등학교 교사의 컨설팅장학에 대한 인식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승 (2016). **교육·심리·사회 연구방법론**. 경기: 교육과학사.
- 이주하 (2011). 보육교사에 작용하는 전문성 이데올로기 비판: 보육교사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육학논총**, 32(2), 1-16.
- 이진욱 (2015).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수업컨설팅 실행.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연자 (2019). 평가인증 컨설팅 사업의 활성화 방안-현장방문 컨설팅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호숙 (2009). 유치원 교사의 극활동 컨설팅 장학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영유아 관련 뇌 기반 연구에 대한 고찰. **유아교육연구**, 31(2), 207-231. doi:10.18023/kjece.2011.31.2.010
- 정진희, 이대균 (2019). 어린이집 교사가 요청한 보육활동과 상호작용 컨설팅 실행과정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4(6), 45-75. doi:10.20437/KOAECE24-6-03
- 정효정, 장영인, 김현진 (2016).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욕구를 통해 본 교사중심 보육컨설팅 운영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101, 245-274.
- 조혜진, 고은미 (2015). 보육컨설팅트가 경험한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의 의미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0(4), 73-97.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4. 5). **보육과정 컨설팅 운영 매뉴얼 설명자료**. <http://gyeongginorth.childcare.go.kr/cccef/community/data/DataSl.jsp?BBSGB=50&BID=51092&flag=SI>에서 2020년 11월 28일 인출
- 진동섭 (2003). **학교 컨설팅: 교육개혁의 새로운 접근방법**. 서울: 학지사.
- 탁정화, 황혜익 (2012). 영아교사의 어려움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지원방안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7(2), 73-103.
- 한국보육진흥원 (2019. 5). 2019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설명자료**. <https://central.childcare.go.kr/cccef/community/data/DataImgSl.jsp?flag=SI&BBSGB=42&BID=347712&clsfccode=&offset=>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 황소영 (2020). 유아교사학습공동체 운영지원을 위한 놀이중심 보육과정 컨설팅 경험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1), 1213-1242. doi:10.22251/jlcci.2020.20.21.1213
- 황혜익, 조준오, 김병만 (2012). 보육컨설팅트의 역할과 자질 및 보육컨설팅 요구 영역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6(3), 187-208.
- Beaty, J. J. (2008). *Skills for Preschool Teachers*.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 Elmore, R. F. (2005). *School Reform from the inside out: Policy, Practice, and Performance*. Cambridge, MA: Harvard Education Press.

- Fox, N. A., & Rutter, M. (201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n the effects of early experience on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81*(1), 23-27. doi:10.1111/j.1467-8624.2009.01379.x
- Fullan, M. G. (2001). *The new meaning of educational chang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Glesne, C. (1999).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 An introduction*.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Park, S. (2009). The ongoing process of teacher identity: A qualitative study on one early childhood induction's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5*(2), 97-117.
- Stake, R. E. (2004). *Standards-based & responsive evaluation*. Los Angeles, CA: Sage Publications.
-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3rd ed)*. Los Angeles, CA: Sage Publications.
- Zigler, E., Gilliam, W. S., & Jones, S. M. (2006). *A vision for universal preschool educ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논문투고: 20.12.15  
수정원고접수: 21.01.12  
최종게재결정: 21.02.10